

찾아오신 예수님

Jesus Who visited

(요한복음 John 21:1-14)

요한 웨슬레 묘비에 자신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것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찾아다니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보고 비겁하게 도망 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목표를 상실하고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너희들 왜 그랬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이 나쁜 놈들아 뭐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배신한 제자들을 다 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The epitaph on John Wesley's tombstone reads that the greatest happiness in his life was that God was with him. Today's scripture tells us a story of Jesus Who visited all His disciples without giving them up even after their betrayal. The disciples were living in cowardice, having betrayed Jesus by running away upon seeing Him crucified. To such disappointed people who had lost their goals in life came the resurrected Jesus. An ordinary man would have accused them or even beaten them up saying, "How could you do that? How could you forsake me and run away, you bunch of cowards?" Not Jesus. Instead, He visited them who had betrayed Him.

오늘 내용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 밥을 준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라 하고서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음식을 배에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 가정에서는 물론 우리네 삶에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실 때 함께 밥먹는 잔치집에 초청받는 것으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This is such a heartfelt story. The resurrected Jesus prepares for breakfast, invites His disciples to join him, and shares the meal with them. This is not simply filling your stomach with food. I think Jesus is suggesting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place to keep for people loving and living together, an important task to restore in our family and our lives. So when explaining the kind of place heaven is, Jesus often used a fable of being invited to a feast.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보면 예수님 따라 다닐 때 가졌던 꿈과 비전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노릇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찌그러진 인생들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책망하셔야 할 예수님이 "밥 먹자"하시고 함께 조반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밥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ran away when Jesus was nailed on the cross. These are the losers who gave up all the dreams and visions that they once had in their times of following Jesus and went back

to their hometown to live on fishing, rather poorly. Thinking about their past and present, they couldn't dare to say anything to Jesus. Jesus, Who should rebuke them and criticize them, invites them to eat breakfast together. I would imagine that everyone, including Peter, must have eaten in tears with their heads dropped, unable to look Jesus in the eye.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 팔 벌려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송아지 잡아 동네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이렇게 죄진 인간들, 인생 실패한 인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밥 먹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용서, 소명의 회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The story of a returned prodigal is similar. The son returned home having completely squandered his inheritance from his father, who didn't ask anything. He just opened wide his arms, welcomed him in his embrace, brought him in home, killed a calf to throw a feast for the entire village and shared food with his son. Jesus shows that this is the reality of heaven. In other words, heaven is a place where such sinners and losers are eating together in love. Today's verses show God's forgiveness and the restoration of His calling.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엄청난 용서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와 오래 함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60년대 아버지는 미국 유학 떠나셨고 1973년도 시카고로 이민 와서 3년간 함께 살았는데 3년만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큰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사랑의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던 경험입니다.

Most of us must have an experience of being forgiven in such an amazing way. I didn't have many years of life together with my father.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in the 1960s when I was still in elementary school. In 1973, we came to live in Chicago, where our family lived together for three years before my father passed away. It was a short period; nevertheless, my father left me amazing gifts, all of which were of love. First and foremost, they were my father's forgiveness and acceptance when I was at fault.

오늘 성경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우리 가족 시카고로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 바로 밑 동생이 고등학생 때 어느 날 다리에 총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친구가 실수로 총을 쏜 것이 제 동생 허벅지를 살짝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피가 흐르니 아버지는 병원에 가자고 하고 동생은 병원에 가면 분명히 자기 친구 경찰에게 잡혀 갈테니 안 간다고 고집부리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어쩌면 1분일지도 모릅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아버지가 저보고 나가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찾아 헤매시는데 영영 울면서 짐승 울음 소리를 내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았는데 동생이 아파트 뒤 어느 구석에 앉아서 아픈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고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보더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동생에게 빌고는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동생도 울고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정도되면 권위를 지켜서 말 듣지 않는 동생 몇 대 때려주고 잘못했다고 빌면 그 때 손잡고 집으로 가야 하는 건데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동생에게 용서를 비는 것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일 있던 후 사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40 년도 훨씬 넘은 옛날 이야기이고 아버지와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형제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힘을 받아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Today's scripture reminds me of an event that happened sometime after we moved to Chicago. One day my younger brother who was in high school came home with a wound on his leg. It turned out that a friend of his mistakenly fired a gun and the bullet grazed his thigh. As my brother was bleeding, my father insisted on taking him to the hospital, whereas my brother stubbornly refused to go in the fear of having his friend taken by the police. Enraged, my father shouted at him, "Get out of here if you aren't going to listen to me!" Instead of saying sorry, my brother limped out of the house. It was crazy. Ten minutes, or maybe just one minute, passed. Agitated, my father suggested we go out to find him. He searched everywhere, frantically like a madman, wailing like an animal. When we found him, my brother was crying in pain, sitting in a corner in the back of the apartment building. Upon seeing him, my father begged him for forgiveness. My father said he was wrong and held my brother's hand to take him home. My father cried and so did my brother, but I was angry as I walked behind them. I was outraged thinking that my father should have used his authority to beat this stubborn child up maybe and take him home only if he asked for forgiveness; however, it was my father who sought forgiveness first. Soon after that my father passed away. It was more than 40 years ago and we did not live with father for a long time, but to this day we brothers have lived with the power of father's love like that.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잘잘못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밥 준비해 놓으시고 불러서 밥 먹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밥을 먹는 제자들이 말도 못하고 끼이 끼이 울면서 밥을 먹고 있을 것 생각해 봅니다.

Jesus did not try to settle scores. He just prepared for breakfast and invited His disciples. I picture those disciples who must have been tongue-tied, choked in tears, trying to eat with Jesus.

지난 주간 제 폐북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카톨릭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프랑스 어느 마을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황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어느 8 살정도된 소년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질문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교황이 그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겠으면 귀속말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흐느껴 울면서 교황에게 귀속말로 뭐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울면서 내려옵니다. 교황이 그 소년이 귀속 말로 한 질문을 이야기 해 줍니다. 얼마전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을 소년이 한 것입니다. 그 아이 말은 아버지가 세례를 받지 않는했지만 아들 네 명을 모두 예수 믿고 카톨릭 영세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임마누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다. 착한 사람이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않았지만 네 아들을 모두 신앙에서 자라도록 세례 받도록 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들 임마누엘이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가야 나중에 자기도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텐데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하는데 착한 아버지, 아이들을 모두 예수 잘 믿게 하고 세상 떠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기 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더군요. 교황의 말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이들 모두 세례 받게 하고 신앙 생활 잘하도록 만들고 비록 본인은 세례 받지 않고 세상 떠났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

There was a video last week on Facebook on Pope Francis visiting with young children in a town in Italy. These children would ask questions to the Pope. An 8-year old boy Emanuele hesitated when it was his turn. The pope asked him to come closer to whisper if he couldn't talk in front of people. Sobbing, the boy whispered something in the pope's ear and came down where he was sitting. The pope shared with the audience what the boy said. The boy's father died a while ago and he had not believed in Jesus. The boy was wondering if his dad could go to heaven. The boy attested that although his father was not a believer, he made sure that all four sons of his were baptized in Catholicism. Pope said, "Emanuele's dad was a good man. A good father. He had all his sons baptized and grow up in faith, although he didn't go to church, nor was baptized. That father died. Can he go to heaven? The son Emanuele is asking me if his dad could go to heaven, because he will be able to see him in heaven after death if he is in heaven. What do you think? God has the heart of a father. Will such a God Who has the heart of a father want to make the boy who loves and misses his deceased dad, meet him in heaven? Will God allow such a good dad who raised all his sons in faith to be reunited with his son in heaven? What do you think?" Many people in the audience cried. Pope said, "Who goes to heaven is known only to God. But what I know clearly is that God has a heart of a father. I don't think God will not allow a dad who had his children baptized and lead a life of faith to see his children in heaven."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보다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흉내 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황의 겸손한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러는 일 없어야 합니다.

As I was watching the video clip, I was so grateful that the pope did not pretend that he was God. Among believers, particularly those whose faith appears to be great, some tend to pretend they are God. Usually, such people are a hindrance to evangelism.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people are reluctant about coming to church is that such pretentious people hurt others, having them fall. For that reason, I like the pope's humility. As believers, we must not falsely assume such an attitude as if we are God.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예수님 사랑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는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들 만나서 야단 치신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인생 후회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고 함께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겨우 새벽에 예수님 도움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가지고 육지에 내린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와서 아침 먹자”하신 것입니다.

God's heart. Jesus' love. Law is important, so is the doctrine. However, these are not more important than God's heart or Jesus' love. Jesus, after being resurrected, looked for His disciples. He must have

thought what those people needed the most. He must have seen that there was no point of rebuking those cowards, who obviously were suffering from pang of consciousness. What was amazing though was that the disciples were not scattered all over, instead fishing together. Jesus found them there. Having tried to catch fish all night without any success, and having caught a lot of them in the morning only with the help of Jesus, as they arrived on the shore in exhaustion, they were greeted by Jesus with an invitation for breakfast.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적도 정말 엄청난 보통 인간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제자들 앞으로 순교의 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이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정말 맹세했을 것입니다. 나 죽어도 이제는 예수님 배신 안한다. 한 인생 사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런 분 만나고 저 분을 내 스승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천하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are overwhelming events for any ordinary people to bear. For Jesus' disciples, who were martyred in the future for their faith, the love Jesus showed them after His resurrection was so powerful. If I had been with Jesus there, I would have sworn in my heart, 'I will never ever betray Jesus for my life. Having Jesus as my teacher and Lord is the best thing in my whole life. I have nothing else to desire in this world. I am the most blessed man in the world. I will live for Him and die for Him!'

십자가 사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사건도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다시 소명 받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위대한 순교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엄청난 대역사를 연결해 주는 연결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결의 고리를 “와서 아침 같이 먹자”라는 말씀으로 이어 주십니다.

The cross caused tremendous pain to Jesus and led to eventual death of Jesus. The opening of the tomb and resurrection of Jesus after three days was an unfathomable miracle in human history. The future of Jesus' disciples, who met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and were given a new calling from Him, was great martyrdom. The encounter we found in today's scripture connects these two monumental moments in the history (i.e., resurrection of Jesus and martyrdom of disciples) and Jesus connects them by simply saying “Come and have breakfast.”

과거 잘못, 과거의 죄를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 바쳐 순교해야 할 교회의 미래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너희들, 너희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t would be important to deal with past mistakes and sins, and it would be also important to plan for the future of church disciples should serve till their martyrdom. However, I think what Jesus was focusing on at the moment was none other than the disciples themselves.

세상 중요한 일 많습니다. 한 인간은 물론 교회도 이루어야 할 대업도 있고 멋지게 위대한 일 해보고 성공도 하고 세상 천하에 이름 낼만한 인생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새 역사 그 사이에 사랑의 확인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빠지면 십자가 구원이나 부활 승리나 무의미 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There are many important things to do in the world.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a church as well as a man to be successful and accomplish a lot so that they are honored and remembered by other people in the world. However, Jesus' concern was not so much about what to do or how to do. His focus was on the love relationship with His disciples. Without love, salvation or victory over death means nothing. They all have meaning because of the love of God.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This is why the Apostle Paul proclaimed that without love, all is nothing.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가진 것은 바로 이 못나고 죄 많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역사에 써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짧거나 길거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이 시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빠지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과의 순간 순간을 소홀히하며 지나가면, 평생 아무 만남도 귀한 줄도 모르고 세월 허비하는 것이 되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In the book 'Jesus, the Son of Man' by Kahlil Gibran, a Lebanese poet, Jesus says, "Others love you for their own sake, but I love you for your sake."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Jesus loves His disciples the most despite their weaknesses and sins. His love for them was His supreme concern. It was not because He wanted to use them for any work or goals He wanted to accomplish. Likewise, we should also focus on people around us here and now in our life. If we are too concerned about the past or the future while showing little care for the people with us here and now, we would end up wasting all our life, not realizing the precious relationships given to us in life.

오늘 본문 3 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삶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의미가 부여 되어있지 않은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 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 나오죠? 누가 복음 5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친구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하고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하시면서 제자로 삼습니다.

In verse 3 of today's scripture, when Peter said he was going out to fish, other disciples followed him without thinking much. They were returning to the old way of life they used to live. They are going back to the way of life without a holy purpose or meaning. The verse 4 shows that they were exhausted but caught nothing. A similar scene is described in another book in the New Testament. It is in Chapter 5 of the Book of Luke, which describes the first encounter of Jesus with the disciples. Peter and his friend fishermen, worked all night but caught nothing. Then Jesus told them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When they did as such,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and made Peter his disciple.

오늘 사건은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엄청난 충격의 사건 이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아무 의미없이 뜻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탕치는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터전, 생존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복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와서 아침 먹자”하신 것입니다.

Today's scripture reminds us of the time when the disciples first met Jesus. After experiencing such a painful event of Jesus' death on the cross, Peter and other disciples returned to the old way of life and were living with no clear purpose. However, even the old life style was not easy to them. In the midst of their workplace, they encountered resurrected Jesus again.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chapter and chapter 5 of the Book of Luke, Jesus prepared breakfast for them and said “Come and have breakfast.”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몸짓으로 때로 바쁘기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와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제시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Sometimes we live a busy life without a clear purpose and goal. We should meet Jesus to eat food and drink living water He provides for us. And we should live a holy life Jesus is leading us to.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saints have a past and every sinners a future.” (모든 성자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신나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모든 죄인 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죄인 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와서 아침 먹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The importance of Jesus' meeting with His disciples after resurrection is the restoration of life. From the moment on, we stand up again and start anew. Oscar Wilde once said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Isn't it the most exciting thing for the believers in Jesus that every sinner has a future? This is the gospel of Jesus' love and grace. Even to sinners, there is a future of grace that God prepares. The resurrected Jesus came to the disciples and invited them to the breakfast table saying “Come and have breakfast”, so that they could be renewed in their calling and empowered to rise up again.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한번 설교해서 3,000 명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결국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와서 아침 먹자”하신 예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So, what happened to the disciples later? Peter and John did the miracle of lifting up a beggar who could not walk. Peter's preaching led 3,000 people to the Lord at one time. Thomas, who doubted

Jesus' resurrection, spread the gospel as far as India and was martyred there. All the other disciples also preached the gospel throughout their lives and were martyred in one way or another. To the point of martyrdom, the encounter with resurrected Jesus and leading of the Holy Spirit were with them. In the midst of them, they had deep and intimate love of Jesus who invited them to come and eat.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을 해변가에서 함께 나누는 제자들에게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삶의 관심이 향하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넓은 세상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헛수고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한 분 그분을 향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허망한 꿈에 부풀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The disciples went back to the old pattern of life without thinking much. After having breakfast with Jesus on the beach in that morning, what happened to them? Now their whole attention turned toward Jesus. They once turned to the sea, or the world, and tried to catch fish, but they failed. The encounter with Jesus changed their goal and passion for life and made them focusing only on Jesus. They used to have vain ambition to take an important position when Jesus became the king of Israel. However, it was not anymore. They witnessed the pain and death of Jesus on the cross, so that they became frustrated and fearful. However, when they met resurrected Jesus, they had nothing to fear any more. They used to be afraid of death, but now they were ready to give up their lives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 gospel of love and grace that Jesus offered them.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 고통의 현실이 십자가 은혜 체험의 기회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체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We may have a moment in life when our eyes and minds are opened and our perspectives are renewed. All of a sudden, we realize that our life is not a failure but one that is prepared by the grace of God for a new beginning. The painful moment of life turns into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grace of the cross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얼마전 어느 글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나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신발을 불평했는데 길가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무슨 말인가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신발을 불평하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In a short article I read it reads, “This morning, I was complaining of my shoes as I left the house. Then I saw a man who was not wearing shoes.” What does it mean? As soon as he saw a man without shoes, he was ashamed of himself complaining about his shoes.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고, 가정의 현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The same is true to church life and family life. At some point in time, the world of our mind and spirit should be open. Without it we can neither receive blessing from church life nor appreciate how precious our family life is. If we can't see God's work and His love through spiritual and faithful eyes with our mind open, we are truly unlucky.

5 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향해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그래 나없이 너희들이 살아보니까 살만 하나?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초대하시는 말씀일까요? 여하튼 예수님이 6 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11 절에 보면 153 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연구를 하면서 왜 153 마리인가? 고민하다가 완전 숫자 $10 + 7 = 17$ 그리고 1 부터 17 까지 숫자를 더하니 153 이 나왔다 뭐 그런 거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153 의 신비를 풀려고 하지만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In verse 5 Jesus asked a question toward His disciples who didn't catch any fish all night. “Friends, haven't you any fish?” In some sense, it sounds like He is teasing them. Why did He ask the question? Does it mean, “What can you do without me?” Or, does He invite them again, “Stop it. Come back to me.” Anyway, Jesus told them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v 6).” Then, they caught so much fish that they were unable to haul the net. In verse 11, it said they caught 153 fishes. Many people even including St. Augustine have agonized about the number of fish to unravel the meaning of it, ‘Why are 153 fishes?’ They found out that addition of two complete numbers 10 and 7 makes 17, and adding 1 to 17 makes 153.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unravel the mystery of the number, we arrive at the same conclusion. They caught net full of fish.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13 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고 하셨는데 어디 가서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천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풍성하게 먹여 주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지’ 초대교회 지도자들 된 제자들이 반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 주시는데...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a moment life seems in vain even though you believe you live a good life? Then, you may need to throw the net to your right as Jesus suggested. Verse 13 reads ‘Jesus came,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did the same with the fish.’ No description is available about where He gets the bread from. But what were His disciples reminded of at the moment? They may have imagined the miracle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es. It was a miracle feeding more than five thousand people out of nowhere. ‘In the end, it is Jesus who feeds us abundantly, but why didn't

we trust?’ This may have been what His disciples, the leaders of the First Church, reflected. Jesus fills... Jesus empowers... It is the reflection and repentance that they wanted to live without Him.

어느 여성신학자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을 때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신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질문 던집니다. 왜 빵을 먹으니 예수님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니 예수님은 왜 사라지셨으며 어디로 가셨을까?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그들 손에 들려 있던 빵으로 옮겨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 그들의 몸 속으로 들어가시어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웃에게 떼어주는 빵 속에서, 이웃과 나누는 포도주 속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나눔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While talking about eating with Jesus Christ, one female theologian questioned the meaning of sudden disappearance of Jesus Christ the moment when His disciples heading toward Emmaus with their Teacher recognize Him while eating. How come did they recognize Him when eating? Why and where did He go once His disciples recognize Him? Her theory was: Out of their sight Jesus became their bread and wine, came inside of their body and would resurrect in their lives. So, Jesus will resurrect in the bread and wine we share with our neighbors. Sharing our life becomes living a life as a witness of Jesus’ resurrection.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만드셨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밥먹자”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 밥상이 산해진미로 비싼 것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밥상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Jesus fixed breakfast for His disciples and ate with them at the sea of Galilee. Some time we don’t realize thankfulness of Jesus who is among us because we don’t care. We only appreciate when something big happens. No. He is just among us. Because of Him, we and our families live a peaceful life and enjoy overflowing blessings. We ought to realize His great love calling “Come and have breakfast.” All sorts of delicacies on our dinner table can’t make us happy. Eating with Jesus Christ is the heavenly feast.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수선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별 건가요? 함께 아침 먹을 수 있다면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다면 천하에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가 별 건가요?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교회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가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천하에 가장 행복한 교인입니다.

Good faith shouldn’t be boastful. What is a happy family at all? If a family can have breakfast or dinner together, it is the happiest family in the world. What is a blessed church member at all? Having church members by my side to worship together, having someone calling my name and sharing food together, having a chance to work for God’s mission no matter how small or poor I am in the world... This person is the happiest Christian in the world.

예수님이 차려 주시는 아침식사가 있는 해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 만남과 아침식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겨울 아픈 겨울의 한복판을 들여다 보면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았습시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삶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오셔서 “와서 아침 먹자”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What a beautiful morning it would be with breakfast Jesus fixed for His disciples at the beach. It was such a beautiful encounter which we miss dearly. But that’s not all. Jesus is with us, in our life. Reflecting dark or painful moments of our life, we found we were not alone. Jesus was there all the time. He came to us in the hardest time of our life, and called us “Come and have breakfast.”

“와서 조반을 먹으라” -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를 빕니다. 고기 잡아보겠다고 바다에 나가고 또 나가지만 허탕만 일삼는 분들 계시면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나오시기 빕니다. 나와서 자꾸 헛된 것 또 찾으려 다니지 마시고 “와서 아침 먹자”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시기 빕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This is the invitation of Jesus Christ who loves you. If anyone of you haven’t met Jesus yet, I hope you open your heart wide open and meet Him. If anyone of you keep catching no fish no matter how hard you try, please stop that and come to the beach Jesus stays. I pray that you don’t look for anything in vain, but respond to His invitation.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이 계절 주님 만나 예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a perspective, faith is so easy. You only need to acknowledge Him. It starts when you call Him ‘My Lord.’ Once you start confessing with your mouth, you will believe it in your heart. He is already by your sid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meet the resurrected Jesus who is looking for His disciples and find happiness through meeting Him.

English translation volunteers:
Jisook Paik, Jae Won Rodriguez, Jinchul Park